

사무엘하 11.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다윗’ (삼하 11 장 1-26 절)

들어가기

사무엘하 1 장부터 10 장까지는 ‘사울’ 왕이 죽고 처참히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이 다시 회복하고 이전 보다 더 강하게 세우는 내용들이 기록되었습니다. 반면, 사무엘하 11 장부터 20 장까지는 ‘다윗’ 가정의 죄악과 갈등이 주요 내용으로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게 되는 11 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당시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 교제를 해왔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이를 덮기 위해 고의적으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 죽게 만드는 큰 범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다윗’의 범죄를 보면서, 먼저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가를 다시금 깨닫고, 비록 하나님께 인정받던 ‘다윗’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 큰 범죄를 저지를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항상 죄의 유혹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길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1. 평안하고 안일할 때 찾아오는 범죄의 유혹을 주의해야 합니다. (1-5 절)

1) 암몬 연합군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출전하자 ‘다윗’은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어 저들을 맞아 싸우게 하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1 절).

✧ 참고: ‘요압’이 에워싼 ‘랍바’는 당시는 암몬의 수도였고, 오늘날은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

▪ 질문 1. 이때 ‘다윗’은 왜 부하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을까?

2) 저녁때에 침상에서 일어난 ‘다윗’은 지붕 위를 걷다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2 절)

✧ 저녁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돌려 생각하면,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저녁이 될 때까지 ‘다윗’이 낮잠을 잤다는 것! -> 이는 곧 낮잠을 청할 수 있을 만큼 ‘다윗’의 상황이 여유로웠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학자들은 이는 날씨가 더운 근동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풍습이라고도 함)

✧ 사탄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우리를 시험에 들고 넘어뜨릴 유혹의 미끼를 던지고 있음을 생각할 것!

3) 주목 -> ‘다윗’의 범죄는 어떻게 발전되었나?

A. 한 여인의 목욕장면을 눈 여겨 보는 데서부터 출발!

- 눈은 항상 우리가 유혹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게 되는 가장 보편적인 입구!
- 하와의 범죄도 그 시작은 그녀가 선악과를 눈 여겨 보는 데서 출발함.
- 그래서 옴은 그의 눈과 언약을 맺었다.

옵기 31 장 1 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 세상 사람들은 육의 것만 보고 추구하면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의 것의 더 소중하게 보고 영의 것을 취하며 살아야 함을 잊지 말자!

B.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함.

-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기 시작함.
- 한 신학자 = ‘새가 우리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깃들이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곧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막지는 못하지만, 대신 우리는 그것이 내 맘속에 또 내 삶에 깃들지 못하도록 즉시 지우고 버려야 한다!
- 그래서 잠언 4 장 23 절은,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가르침!

☆ 그럼 이날 ‘다윗’이 본 여인은 누구인가? ->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인 _____

☆ 2 절 - 그녀가 심히 아름다웠다고 함. 그러나 그녀는 분명 유부녀였음!!

C.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가 이렇게 유부녀인 것을 알았으면서도 데려와 그녀와 동침하였음!

- 이는 하나님의 율법(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이었음!
- 야고보는 1 장 14-15 절 말씀을 통해 잘못된 욕심들은 죄를 낳고 그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됨을 경고하였음.

▪ 질문 2. 그럼 이때 ‘밧세바’는 과연 무죄하다고 볼 수 있을까?

4) 결국 이 일로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5 절)

2.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급히 사자를 보내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6-13 절)

1) ‘다윗’은 명을 듣고 달려온 ‘우리아’에게 전장의 소식을 묻고는 집으로 돌아가 발을 씻으라 명하고 왕의 음식물들을 함께 보내었습니다. (6-8 절)

▪ 질문 3. ‘우리아’에게 집에 돌아가 발을 씻으라며 음식을 함께 보낸 ‘다윗’의 의도는 무엇인가?

☆ 잠언 28 장 13 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

2) 그러나 ‘우리아’는 충신이라 집으로 돌아가 평안한 휴식을 취하기보단 왕궁 문에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야영하였습니다.

☆ 이에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 왜 집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 이때 ‘우리아’의 답은?

☆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이 말을 들을 때 어떠했을까?

3)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한번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고 친히 술상을 베풀어 자기 앞에서 그를 취하게 만들었으나,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궁에서 밤을 보내었습니다. (12-13 절)

3.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우리아’를 다시 전장으로 돌려 보내며 편지 한 통을 ‘요압’에게 전해 주도록 명하였습니다. (14-17 절)

1) 이때 ‘다윗’이 전하라고 한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나?

☆ 15 절,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 ‘다윗’의 범죄가 심각한 것은 단순히 그가 유혹에 넘어가 ‘밧세바’와 동침하였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나아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급기야는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던 의인을 악한 계락을 써서 죽이는 일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우리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까지 행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죄의 울무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강박해지고 양심이 마비되는지를 깨달으며 항상 죄의 울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이 아닐까?
->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2) ‘다윗’의 편지를 전해 받은 ‘요압’은 ‘다윗’의 명대로 ‘우리아’를 암몬 군사들이 있는 곳에 전진 배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16-17 절)

☆ ‘요압’의 태도는 정당한 것일까?

- 요압은 세상 권력 즉 왕의 권력에 순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선 다윗의 악행을 도우며 함께 ‘우리아’를 죽이는 간접 살인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

- 세상의 권력도 바울은 로마서 3 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에 우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서까지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엡 6 장 1 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 ‘우리아’가 죽자 ‘요압’은 ‘다윗’에게 ‘우리아’의 죽음을 즉시 알렸습니다. (18-25 절)

1) ‘요압’이 보낸 전령을 통해 ‘우리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가 패전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나?

- ✧ 25 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 ✧ ‘다윗’은 오직 ‘우리아’의 죽음에만 관심을 가졌고, 이스라엘 군대의 병사들이 죽은 것에 대해선 전혀 개의치 않았음! -> 대신 자신의 모든 계략을 알고 있던 ‘요압’의 마음만 살핌!
- ✧ 특별히 이때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패한 것이 사실은 자신이 명령한 일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으며 가장 선한 사람처럼 ‘요압’을 위로하고 권면하듯 행동했다는 것!

❖ 참고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싸우던 물맷돌을 손에 쥔 소년 ‘다윗’은 참으로 신실하고, 용기 있고, 지혜롭고,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너무나 양심이 실종되고, 간교하고 비열해져 버렸습니다. 그럼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살고, 의로 살고, 진리로 살고, 영으로 살 때는 위대하나 죄에 끌려 살고, 자기 꾀로 살고, 비양심으로 하나님을 잊고 살면, 이처럼 초라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5. 남편 ‘우리아’가 전장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밧세바’는 그를 위해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26-27 절)

- ✧ 많은 학자들은 당시 ‘밧세바’의 울음은 그저 죽은 사람을 위해 보통은 7 일에서 길게는 30 일간 애도하던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른 울음일 뿐이라 해석함.
- ✧ 그 이유는 만약 그녀가 진심으로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면, 그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는 것!
- ✧ ‘다윗’은 ‘우리아’의 장례절차가 다 끝나자마자 ‘밧세바’를 자신의 궁으로 데려와 자신의 아내로 삼고 아이를 출산하게 하였습니다.
- ✧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행위를 악하다고 여기셨습니다!!!

✚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로 묵상했거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 중보기도 나눔.